

전남도,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안전’

2013년부터 7천817건 시료 식약처 기준에 모두 적합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김충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남에서 생산된 수산물 7천817건의 시료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추진한 결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전남도(<https://www.jeonnam.go.kr>)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누리집(<https://ofsi.jeonnam.go.kr/sites/ofsi/index.do>)에 매일 공개하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방사능 조사 장비 5대(감마 핵종 4-베타 핵종 1)를 설치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3억 5천만 원(국·도비 각 50%)을 투입해 노후 장비 1대를 교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점인 2023년부터 방사능 조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품종 및 건수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64품종 836건, 2023년 89품종 1천301건, 2024년 90품종 1천 437건을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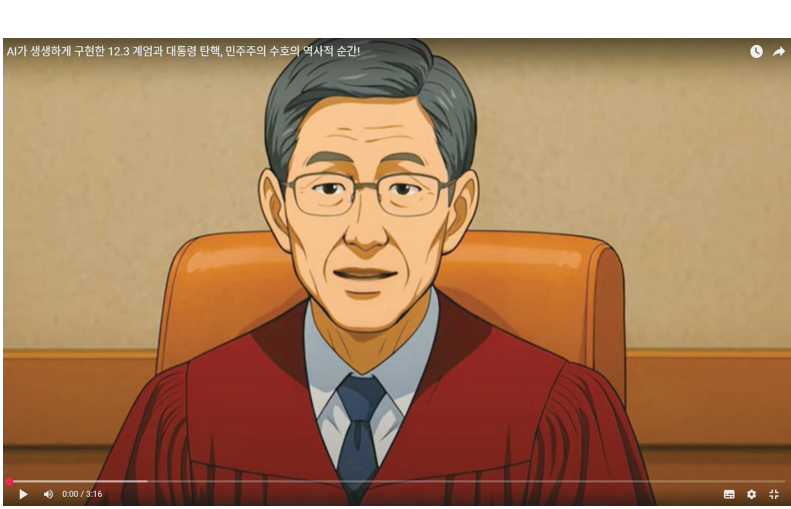
추가적으로 2024년부터는 주요 양식수산물 산지인 신안, 보성, 고흥, 여수의 4개 정점에서 양식장 주변 환경 방사성 물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해수 및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직접 채취해 인공 핵종(29종)과 자연 핵종(12종)을 조사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기준과 비교 분석해 오염수 방류 전·후의 도내 분포 경향 확인에 필요한 실증 자료를 지속해서 축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석한 양식장 환경 시료는 기준 범위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 전남지역 생산단계 수산

물 및 양식장 해역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결과를 ‘2025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춘계 학술대회(경주 라한셀렉트)’에 발표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학술적으로 제공하고 대외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재까지 전남에서 생산단계 수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총 134만 톤을 방류한다는 일본 계획을 고려하면 안심은 금물”이라며 “기준치 이하의 수치 변화도 세밀하게 살피는 등 국민 불안감 해소와 먹거리 안전에 더욱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주시, ‘현재 탄핵 결정문’ 애니메이션 제작

어려운 법률내용 시각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제작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4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근거해 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23년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을 개설, 시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은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 실제 판결문 낭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탄핵소추안 절차적 결격과 현재의 판단 근거 등을 요약해 담았다.

광주시는 앞서 ‘계엄과 헌법’을 주제로 한 민주시민교육 영상시리즈를 솜뿔로 제작했다. 1편은 선진국의 헌법 수호 제도를 소개하고, 2편은 5·17 계엄과 2024년 12·3계엄의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민주주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gwangju_citiz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시민들이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현재 결정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며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헌법 의식 함양을 위해 앞으로도 시민소통과 참여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 국가 공인 기준을 적용한 체력 인증제를 도입한다.

체력 검증의 공정성 확보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응시자가 체력 측정에 참여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이다. 남구는 25일 “올해부터 가로환경관리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에 사용했던 체력 검증 방식을 대신해 국민체력 100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한 국민체력 100 인증제는 평가의 공정성과 함께 채용 절차 간소화에 따른 예산 절감, 응시자 부담 경감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남구, 가로환경관리원 ‘체력 인증제’로 뽑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 100’ 서비스 활용

공정성 확보·예산 절감·응시자 부담 경감 효과

특히 체력 검증의 주체가 국가기관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체력과 건강을 측정한다는 점이 새 검증 체계를 도입한 결정적 이유이다.

실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 차원에서 개개인의 체력을 측정해 그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체력 100 인증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에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체력

100 인증제는 참가자의 건강 상태 결과를 아주 세밀하게 제공한다.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살펴보기 위해 근력을 비롯해 심폐지구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까지 6개 분야를 테스트한다.

반면에 기존의 체력 검증은 100m 달리기와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합계 기준으로 삼았다. 업무 수행에 적합한 체력 정도를 해당 기록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당일 컨디

션이 좋지 않은 응시자가 중도에 탈락하는 문제도 있었다.

남구는 새 검증 방식 도입에 따라 향후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 응시자의 체력 검증 과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서도 해당 지원자의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2개 분야의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응시자가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한 뒤 적합한 시기에 맞춰 국민체력 100 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채용 시험에 따른 응시자 부담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국가 공인 기준 적용으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없고, 체력 측정 장비 대여와 장소 설비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임채일 기자

동구 주민자치회 성인지 교육 오는 7월까지 실시

광주여성가족재단 협약, 13개 동 주민자치회 대상 진행

유 ▲폭력 예방 및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실천과제 등이다.

이 교육을 위해 주민자치회 동구협의회(회장 김호성)는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 이사 김정례)과 지난 3월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업무 협약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광주여성가족재단 위촉 전문가들이 각 동 주민자치회를 방문해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첫 교육은 지난 10일 계림1동 주민자치회에서 열렸다.

매회 교육 후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학습자들의 의견은 향후 교육 방안을 수립하는 데 반영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은 인문학적 소양의 핵심 요소이기에, 성인지 교육을 주민자치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마을에서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해 ‘마음톡톡(talk talk) 서구 직장인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으로 마음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서구가 직장 또는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된다.

서구는 현장에서 ▲스트레스·우울검사

서구, 직장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마음 건강검진·상담·강좌 등 다양한 마음 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뇌파·맥박 측정 등 정신건강검사 ▲고 위험군 대상 ‘마음건강주치의’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신건강 강좌 ▲원예·아로마 프로그램 등 직장인들의 마음 회복을 지원한다. 또 ▲당뇨·협압 측정 ▲니코틴 의존도 검사 및 금연상담 등 신

체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소재 30인 이상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신청을 원하는 직장이나 기관은 5월 16일까지 서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envi20@korea.kr)으로 제출하

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062-350-4776)로 문의하면 된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마음을 챙길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을 위해 일터 중심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지나해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올해도 많은 기관이 함께해 건강한 직장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북구,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술을 접목한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아트테리어’는 아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지역의 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연결한 뒤 특색 있는 디자인을 활용한 점포 내·외부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내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여 총 30개소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달 중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서면 심사(40점)로 1.5배수를 선정한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의 현장 방문 심사(60점)를 통해 사업장 관리상태, 성장 가능성, 대표자 마인드, 지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최종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예술가와 1대1 매칭을 통해 점포의 간판, 어닝, 벽면 페인팅, 핀도우시트, 월 데코, 쇼윈도 디자인 등 내·외부 시설 개선과 그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내에서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할 지역예술가는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주이며 시각 예술 분야 및 인테리어 분야 전공자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송현근 기자

